

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임원경제지 섬용지 영조기사의 구성과 특징 연구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Dealing with Architecture in the Chapter of *Seomyongji* of *Imwongyeongjeji*

이강민*
Lee, Kang-Min

Abstract

Imwongyeongjeji, Administration of Our Daily Life in Woods and Fields, is a sort of encyclopedia compiled by Seo, Yoo Goo in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This voluminous work is made up of 16 chapters with various references including many articles dealing with architecture. The chapter *Seomyongji* covering the daily necessities contains a number of methods and materials of building construct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se articles is that they are mostly from Joseon's books. It is not similar to other chapters which are made of quotations from Chinese books. Especially, he quoted many of articles about architecture from his own work *Geumhwagyeongdokgi*, Record of Plowing and Reading in Geumhwa. In addition, He selected only empirical knowledge, put it in the book, and commented on it in his judgment. These article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architectural knowledge in late Joseon period.

Keywords : *Imwongyeongjeji*, *Seomyongji*, Architectural Knowledge, Bibliography

주요어 : 임원경제지, 섬용지, 건축지식, 서지학

I. 서론

1. 연구의 대상과 목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矩, 1764-1845)가 의·식·주 및 문화생활 전반의 지식을 1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수록한 서적이다. 250만 여 자 분량의 31,697개 기사가 8,400여 개의 제목과 표제어로 구분되어 총 113권 54책의 방대한 규모로 편찬되었다.¹⁾ 더구나 다양한 전문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가 글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각 전공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기사는 김성우·안대희의 선구적 업적을 바탕으로 널리 소개된 바 있으며,²⁾ 많은 논문들에서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문헌적 가치에 대한 검토는 미미한 실정이다.

『임원경제지』의 검토는 서적의 성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유서(類書)로 구분된다. 유서란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원문을 발췌하여 분야에 맞게 재편집한 서적으로서 검색과 인용에 편리를 제공한다. 중국에서 기원한 유서는 통치자에게 전범을 제공하거나, 문학장르의 모범을 제시하거나, 과거시험의 참고서로 이

용하기 위해 편찬되어 왔는데, 특히 명대에 이르러 유행이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역대로 중국의 유서를 수입해서 이용했지만, 국가주도의 대형 유서편찬사업은 잘 없었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 민간에서 대형유서들이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약 840여 종의 서적을 인용한 『임원경제지』는 대표적인 편찬의 하나로 손꼽힌다.

여기서 『임원경제지』 해석의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한다. 유서는 기존의 문헌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의 정체성을 논하기 힘들다. 유서의 창의성은 각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편집구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차와 인용서목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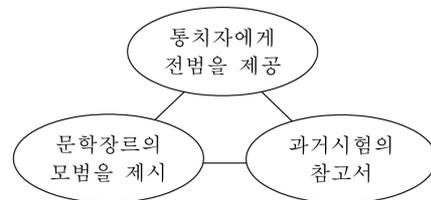


그림 1. 유서(類書)의 기능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정명현(2009). 『임원경제지』 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규장각, 34집, 206.

2) 잡지 『건축과 환경』과 『꾸밈』에 1987년부터 1890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섬용지의 일부, 이운지의 일부, 상택지의 건축관련 내용을 번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대희(2005)에 의해 『산수간에 집을 짓고』가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임원경제지』의 건축관련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임원경제지』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건축기사의 분포를 살펴 보며, 마지막으로 「섬용지」 건축기사 구성의 특징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임원경제지』 「섬용지」에 수록된 건축기사의 성격을 드러내고 향후 심화연구의 예비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관점과 방법

이 글에서 차용하고 있는 연구의 관점은 주로 서지학적 분석이다. 서지학(Bibliography)은 도서의 정확한 원문 내용 인식과 복원, 최신의 판본선택, 간행시기의 추정, 진본과 위서의 감정 및 해당서적의 학문적 위치판정 등 기초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동양에서는 교수학, 목록학, 판본학의 전통이 있고, 서양에서는 열거서지학, 기술서지학, 분석서지학, 원문서지학 등으로 세분되는데³⁾,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학문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즉, 다른 학문분야에서 도서를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숨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서지학에서는 도서를 문자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물리적 형태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주의깊게 조사함으로써 도서의 가치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서지학은 물리적인 형태로서 도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적게 개입되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 이용된다. 이 때문에 주거사 등 사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사료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서지학의 기여는 우선적인 요건이 된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대체로 서지학의 연구결과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료의 경우 아직 서지학적 분석이 심화되지 못했거나, 또는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서지학적 관점이 특별히 유리한 경우가 있다. 『임원경제지』를 통해 조선 후기 주거사를 고찰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먼저 『임원경제지』의 건축관련 기사는 아직 서지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으며, 유서라는 서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그 물리적 구성형태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지학의 이슈를 연구단계에 따라 구분해보면 고서의 정리문제, 판본의 검증문제, 내용의 분석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⁴⁾, 『임원경제지』의 경우 앞의 두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다. 현재 통용되는 『임원경제지』의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52책),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49책),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소장본(3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9책) 등이 있으며,

이 중 오사카본이 초고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1939년에 필사된 고려대본이 가장 완전한 선본으로 평가된다.⁵⁾ 또 (사)임원경제연구소에서 전체 완역을 목표로 교감한 원고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글에서 판본의 검증은 이에 의존한다.⁶⁾

이 글에서는 『임원경제지』 건축기사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서지학적 관점을 차용하였다. 이 때 서지학적 관점이란 글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들의 순서와 출전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분류하며, 수학적인 통계를 이용해 분포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건축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글 구성의 물리적인 형태를 살피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텍스트비평을 타 학문분야에 의존해왔던 주거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사료 가치를 검증 및 내용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II. 『임원경제지』에 대하여

1. 조선후기 유서편찬의 경향과 『임원경제지』

19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임원경제지』의 편찬은 18세기 이후 방대한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인 유통에서 비롯되었다.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는 체계적인 정리의 문제를 야기했고, 각종 유서(類書)들이 편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편찬 작업을 주도한 것은 서울과 근교에 살며 지식의 유통을 담당했던 소위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이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삼남(三南)의 사람들과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이들은 전통적인 경학(經學)에서 탈피하여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했는데, 청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신지식을 직접 접하며 실천적인 학문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⁷⁾ 다음으로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계문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역적 연고가 미약한 집안은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장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했다. 서유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했다. 조부 서명옹(徐命膺, 1716~1787), 부친 서호수(徐浩修, 1736~1799) 등의 가학(家學) 전통 속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받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시기에는 집 한 채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5) 이 밖에도 미국 버클리대 아사히 문고본, 일본 이마니시 문고본,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본, 서강대도서관 소장본 등에 일부 자료가 전한다. 각 판본의 서지학적 특징에 관해서는 정명현(2009)을 참고.

6) 2003년부터 번역작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 「본리지」 3권(정명현·김정기 역주)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출판을 진행 중이다. 「섬용지」는 정도원을 대표역자로 이동인, 김태완, 최시남, 이강민 등이 교열 중이다.

7) 18세기 경화사족의 취향과 학문태도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정민(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3) 서지학개론편찬위원회(2004).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11-25.

4) 심우준(1995). 서지학의 제문제, 해진서관의 목차구성을 참고.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예언(例言)에서 직접 밝혔듯이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18세기초)를 의식해서 편찬되었다.⁸⁾ 산림을 임원으로 교체하였으나, 글 전체를 16지로 나눈 점 등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책들의 편찬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책제목인 경제(經濟)의 의미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경제는 원래 경국제세(經國濟世) 혹은 경세제민(經世濟民)라는 국가적 차원의 의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점차 개인적 차원의 실용학으로 변모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economy’의 개념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⁹⁾ 이 과정에서 출간된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농서이지만 농법만을 서술하던 『농사직설』 류의 농서와는 차별되는 특징이 보이기 시작한다. 즉, 의식주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들이 모두 망라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축적 입장에서 보자면 비로소 민간차원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유교 예제의 정당성과 연관된 직전 시기의 전각건축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합리적인 주거건축의 모색이라는 측면으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임원경제지』는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서 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건축기사의 분포

『임원경제지』는 전체내용을 총1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편집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로 불리기도 했다. 단 16개의 분야가 모두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인제지」는 총28권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한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곡물농사를 다룬 「본리지」는 13권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룬 「섬용지」는 4권으로 구성되지만, 「본리지」의 약 2/3 정도 분량이다. 16지의 내용은 예언에 의하면 농업생산기술(耕織種植), 요리·목축·사냥기술(飲食畜獵), 천문·기상관측(占候以勤農), 건축입지선정(相基以下築), 영리활동(殖貨營生), 공업생산술(庀器利用), 원예기법(藝苑肆習), 공부법(文房雅課), 건강관리(頤養之方), 치료(醫藥), 행사절차(吉凶等禮) 등으로 포괄된다.

그러나 『임원경제지』 16지 중 현대적인 건축 Architecture 개념에 정확히 부합되는 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관련 기사는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측량 및 분할법, 물길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리지」에 서

표 1. 『임원경제지』 16지의 내용과 건축기사의 분포

16지	권수 (113권)	주제	건축 관련 내용
1 본리지(本利志)	13	耕織種植 농사	토지의 이용, 척도 및 측량
2 관후지(灌畦志)	4	耕織種植 채소	-
3 예원지(藝畹志)	5	藝苑肆習 원예	정원의 배치와 구성
4 만학지(晩學志)	5	耕織種植 과실수	-
5 전공지(展功志)	5	耕織種植 양잠과 방적	-
6 위선지(魏鮮志)	4	占候以勤農 천체와 기상	-
7 전어지(佃漁志)	4	飲食畜獵 목축과 사냥	-
8 정조지(鼎俎志)	7	飲食畜獵 요리	-
9 섬용지(贍用志)	4	庀器利用 공업생산	건설과정 및 재료
10 보양지(葆養志)	8	頤養之方 건강	-
11 인제지(仁濟志)	28	醫藥 의학	-
12 향례지(鄉禮志)	3	吉凶等禮 행사예절	예제공간의 구성
13 유예지(游藝志)	8	文房雅課 각종 기예	화론, 도법
14 이운지(怡雲志)	8	文房雅課 문화생활	향촌주거의 배치와 구성
15 상택지(相宅志)	2	相基以下築 입지와 환경	입지와 환경
16 예규지(倪圭志)	5	殖貨營生 상업	방법, 도로망

술되어 있고, 집터의 선택과 수목의 조성, 집의 형식과 방향 및 금기에 대해서는 「상택지」에 서술되어 있으며, 원림을 짓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배치의 기법과 건축물의 종류는 「이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각종 통과예례와 향촌행사를 기록한 「향례지」를 통해 유교공간의 형식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이 밖에 화론과 도법 등이 포함된 「유예지」나 주거에서 화재나 방범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예규지」 등 많은 지에 건축내용이 복합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섬용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으로 건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연지세를 살펴 집터를 고르고 아름다운 경관에 은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서적은 이전부터 상당수가 존재해왔지만 건축물의 재료와 규격, 제작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III. 「섬용지」 건축기사의 구성

1. 「섬용지」 건축기사의 분포

「섬용지」는 쓰임을 넉넉하게 하는(贍用) 각종 도구 및

8) “우리나라는 겨우 『산림경제』 한 책 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 책은 군더더기가 많은 데다 채록한 내용도 협소하여 이것을 흠으로 여긴 사람이 많았다.” 서유구, 정명현·김정기(2008) 역주, 임원경제지 1 본리지 01, 소와당, 31.

9) 이현창(2009). 『임원경제지』의 경제학. 제37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진단학회, 41-74.

표 2. 「섬용지」의 목차 및 항목수, 섬용지 영조기사의 범위

권	大目	細條	例
권1	營造之制 집짓는 법	15	69
	營造之具 집짓는 재료	5	23
권2	樵汲之具 나무하고 물기는 도구	2	15
	炊爨之具 요리하는 도구	8	104
권3	服飾之具 입고 두르는 도구	8	65
	盥櫛之具 세수하고 머리빗는 도구	2	26
	起居之具 기거할 때의 가구	4	49
	設色之具 색칠하는 도구	3	41
권4	火燭之具 난방 및 조명기구	4	50
	騎乘之具 이동수단	3	27
	運輸之具 운송수단	3	14
	度量之具 측정기구	3	11
	工制總纂 기타공법	7	114
계	14	67	608

재료, 공법을 설명한 부분으로 총4권에 걸쳐 14개의 대목(大目), 67개의 세조(細條), 608개의 예(例)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권2는 ‘집짓는 재료[營造之具]’라는 대목으로 시작하는데, ‘나무재료[木料]’·‘석재[石料]’·‘흙재료[土料]’ 등의 세조로 구성되며, ‘나무재료[木料]’는 다시 ‘목재의 등급’·‘나무 벌채하는 법’·‘목재 준비하기’·‘금기’의 예로 분화되어 있다. 예는 여러 문헌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였고, 각각의 인용 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 「섬용지」에서 건축 관련 기사는 가장 앞에 배치되고,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섬용지 건축기사의 핵심부분은 건물 짓는 법을 다룬 ‘영조지제(營造之制)’와 건물의 재료를 다룬 ‘영조지구(營造之具)’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건축 관련기사가 발견된다. 나무하고 물기는 도구[樵汲之具] 중에 도끼와 같은 것, 기거할 때 쓰는 각종 가구[起居之具]의 형태와 제작법, 단청에 사용되는 물감의 원료와 특징[設色之具], 거중기나 녹로 등 건축공사에 소용되는 운송수단[運輸之具], 건축에 쓰이는 길이단위로서 영조척[度量之具], 기타 공법을 모은 부분[工制總纂]에 있는 자귀, 톱, 대패 등 치목 연장들이 비교적 현대적 의미의 건축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주거사(住居史)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섬용지」에 수록된 모든 기사는 주생활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고 흥미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분석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많은 분량의 건축기사가 밀집된 ‘영조지제(營造之制)’와 ‘영조지구(營造之具)’ 2개의 대목(大目)만을 대상으로(이하 「섬용지」 영조기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총 20개의 세조로 구성되며 92개의 예가 수록되어 있다.

2. 「섬용지」 영조기사 인용서목의 분포

「섬용지」 영조기사를 대상으로 인용서적을 조사한 결과¹⁰⁾, 이들은 『거가필용(居家必用)』, 『고금비원(古今秘苑)』, 『공

표 3. 「섬용지」 영조기사의 인용서목(빈도순)

서명	임원경제지 섬용지		계	연대	왕조	(원)저자	분량	내용
	營造之制	營造之具						
金華耕讀記	57	29	86	19세기초	朝鮮	徐有	8권	19세기초 서유구가 제야에서 경작하며 연구한 내용
增補山林經濟	9	4	13	1766	朝鮮	柳重臨	16권	홍만선의 산림경제(18세기초)를 증편
熱河日記	9	3	12	1780	朝鮮	朴趾源	26권	청나라 연행록
多能集	2	5	7	1818	淸	石成金	2권	『傳家寶』의 권5, 권6에 수록. 일상백과
居家必用	4	2	6	14세기*	元	미상	10권	각종 일상사
古今秘苑	0	6	6	18세기	淸	墨磨主人	32권	일상백과
天工開物	0	4	4	1637	明	宋應星	3권	농업·공업기술
王氏農書	2	0	2	1313	元	王禎	36권	농업과 농기구
泰西水法	2	0	2	1612	明 (Italy)	熊三拔 (Ursis)	6권	관개(灌溉) 방법 및 기계
齊民要術	2	0	2	6세기	後魏	賈思	10권	각종 농업기술, 가축 사육법, 조리법
王氏畫苑	1	0	1	16세기	明	王世貞	미상	화론
天基雜錄	1	0	1	미상	淸	石成金*	미상	미상
和漢三才圖會	1	0	1	1713	日本	寺島良安	105권	명대 『삼재도회』 80권을 모범으로 편찬
山林經濟補	1	0	1	18세기	朝鮮	미상	미상	『산림경제』의 필사과정에서 나온 증본
孔氏談苑	0	1	1	11세기	宋	孔平中	4권	송대의 사회관습, 동식물의 지식
星湖僊說	0	1	1	1740	朝鮮	李瀾	30권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백과
北學議	0	1	1	1778	朝鮮	朴齊家	2권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
俗事方	0	1	1	미상	淸	石成金*	미상	미상
계	91	57	148					*추정

10) 이 때 간접인용은 개수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씨담원(孔氏談苑)』,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다능집(多能集)』, 『북학의(北學議)』, 『산림경제보(山林經濟補)』, 『성호사설(星湖僿說)』, 『속사방(俗事方)』, 『열하일기(熱河日記)』, 『왕씨농서(王氏農書)』, 『왕씨화원(王氏畵苑)』, 『제민요술(齊民要術)』,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천공개물(天工開物)』, 『천기잡록(天基雜錄)』, 『태서수법(泰西水法)』,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가나다순)를 인용하여 구성되어 고금의 중국, 한국, 일본, 서양의 다양한 서적들이 참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18권의 국적은 중국 서적 10권, 조선 서적 6권, 일본 서적 1권, 서양 서적 1권이다.¹¹⁾ 이 때 중국 서적은 다양한 시대적 분포(북위시대 1권, 송대 1권, 원대 2권, 명대 2권, 청대 4권)를 보이는 반면, 조선, 일본, 서양의 서적은 비교적 동시대에 집중해 있다.

3. 「섬용지」 영조기사 인용서목의 인용 횟수

「섬용지」 영조기사 인용서목 분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총 148회의 인용 중 10회 이상 인용된 서적은 3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 3권은 각각 『금화경독기』가 86회, 『증보산림경제』가 13회, 『열하일기』가 12회 인용되었는데, 모두 조선에서 18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된 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3권은 「섬용지」 영조기사의 75%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구성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구성비율은 같은 『임원경제지』 내의 다른 지들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있다. 노기춘(2006)은 농학분야의 6개지(「本利志」, 「灌畦志」, 「藝畹志」, 「晚學志」, 「展功志」, 「佃漁志」)의 인용문헌과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전체 357종의 문헌에서 총 5,349회의 인용이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그 중 100회 이상 인용된 문헌은 모두 10종으로 『군방보(羣芳譜)』 667회, 『왕정농서(王禎農書)』 299회, 『농정전서(農政全書)』 296회, 『본초강목(本草綱目)』 268회, 『제민요술(齊民要術)』 264회,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251회,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250회, 『행포지(杏蒲志)』 213회,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137회, 『박주목단사(亳州牧丹史)』 107회가 인용되었다.¹²⁾ 이중 조선의 문헌은 『증보산림경제』, 『난호어목지』, 『행포지』 정도에 불과하며, 순위도 높지 않아서, 중국문헌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곡물농사를 다루는 「본리지(本利志)」를 번역하면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전체인용횟수의 약 65%를 중국문헌이 차지하고 있다.¹³⁾ 마찬가지로 의약학 분야인 「인제지(仁濟志)」를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다.¹⁴⁾

표 4. 「섬용지」 영조기사와 「본리지」 기사의 인용비율 비교

	중국	한국	일본	서양	계
섬용지 영조기사	31 (21%)	114 (77%)	1 (1%)	2 (1%)	148
본리지*	485 (65%)	242 (32%)	7 (1%)	16 (2%)	750

*정명현·김정기 역주(2008)의 통계

이와 같이 인용서목의 분포와 빈도 분석을 통해 「섬용지」 영조기사가 『임원경제지』 전체 구성 중에서도 특수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기사들에 비해 한국적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인용서목의 분포와 빈도가 곧바로 내용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IV. 섬용지 영조기사 구성의 특징

1. 인용서적 국적의 편중

앞 장에서 분석한 인용서목의 분포와 빈도를 통해 인용서적이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주로 조선후기에 조선에서 편찬된 서적들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기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例)의 구성과 국적

먼저 「섬용지」 영조기사는 총 92개의 예(例)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조선의 문헌만으로 구성된 예는 총 71개(㉠)이며, 중국 문헌만으로 구성된 예는 12개(㉡), 나머지는 다른 국적의 문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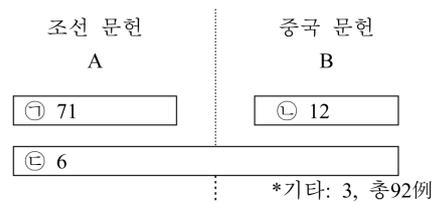


그림 2. 「섬용지」 영조기사 예의 구성

즉, 예의 구성에서 하나의 항목은 비교적 단일한 국적의 서적을 인용해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짐작컨대, 이는 유서를 편집하는 과정이 미리 세부목차를 정한 후 필요한 기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기사를 모으면서 제목을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주제어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인 예의 구성에서 다양한 지식정보의 수합특징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기사 구성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단계 더 상위수준의 목차인 세조(細條)를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11) 熊三拔(Ursis)의 태서수법(泰西水法, 1612)은 비록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서양인에 의해 쓰여졌고 서양의 지식을 반영한 서적으로서 서양 서적으로 분류했다.

12) 노기춘(2006).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 -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375-403.

13) 서유구(정명현·김정기 역주, 2008), 같은 책, 19. 본리지 해제 중에서

14) 노기춘(2006).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2) -仁濟志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35輯, 231-271.

2) 세조(細條)의 구성과 국적

세조의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총 20조 중 조선문헌 없이 외국문헌으로만 구성된 조목(㉠)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반면 외국문헌 없이 조선문헌으로만 구성된 세조는 총 11개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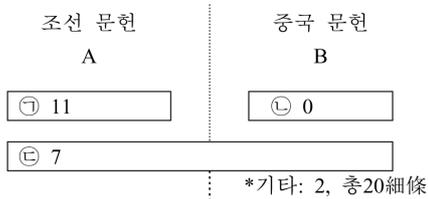


그림 3. 「섬용지」 영조기사 細條의 구성

이는 「섬용지」 영조기사가 조선문헌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앞 장의 분석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 정도가 매우 과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당수의 주요 항목이 중국문헌의 인용없이 순수한 자국문헌으로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 지식의 보완

그렇다면 「섬용지」 영조기사는 토속기술만을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 문헌 중에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1780)와 홍만선이 편찬하고 유중림이 증보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두 책은 조선의 서적이지만 중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은 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열하일기』는 먼저 몇몇의 서적을 제외하고는 가장 동시대의 중국 문물을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선 지식인의 관점에서 비평을 개입시켜 선택의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가장 쉽게 중국 문물을 한국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증보산림경제』는 대부분을 중국문헌으로 채우고 있지만 몇몇 지식인의 손을 거쳐 선별된 것들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사들이 모여 있었다.¹⁵⁾ 이렇게 서유구는 중국의 영조기술을 인용함에 있어 실증이 어려운 중국 서적 대신 한번 걸러진 정보인 『열하일기』와 『증보산림경제』를 적극 인용하여 건축기사를 구성했다. 또 이들은 동시에 이용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세조에 이용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열하일기』가 좀 더 보편적인 건축 현상에 대한 기사가 많은 반면, 『증보산림경제』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사가 많은 특징에서 비롯한

15) 김용섭의 분석에 의하면, (『산림경제』에서 홍만선은) “우리 농서로써 그가 의도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면 그는 중국의 농서를 다시 더 인용하지 않았으며, 우리 농서로써 농업기술을 기술해 나가다가 중국의 농서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면 그러한 점은 중국 농서의 기술 내용을 협주로서 본문 속에 첨가하였다...” 김용섭(2009), 『조선후기농업사연구(신정증보판)』, 지식산업사, p. 268. 또 이러한 경향은 『증보산림경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김용섭(2009). 286-287.

표 5. 「섬용지」 영조기사 細條 구성에서 『열하일기』와 『증보산림경제』의 역할

섬용지 영조기사 細條	조선 문헌			중국 문헌	일본 문헌	서양 문헌
	기타	열하일기	증보산림경제			
권 1						
1	堂屋廡寮位置	○	○			
2	基址	○	○	○		
3	尺度	○	○			
4	蓋覆	○	○			
5	房抗	○	○			
6	坊塲	○	○		○	
7	牕牖	○				
권 2						
8	軒樓	○				
9	廚竈	○		○	○	
10	庭除	○				○
11	庫廩	○		○		
12	廠閑	○		○		
13	濶廁溝渠	○		○		
14	牆垣	○	○			
15	井(附. 水庫)	○	○	○	○	○
권 2						
1	木料	○		○	○	
2	石料	○			○	
3	土料	○			○	
4	瓦甎	○	○		○	
5	塗料	○			○	

다. 『열하일기』와 『증보산림경제』의 기사를 따로 구분한다면 순수 조선문헌으로 구성된 세조는 2개조만이 남는다. 즉, 창문(牕牖)과 마루(軒樓) 부분이다.

한편, 건축재료(營造之具)에 관한 세조들에서는 외국의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벽돌, 기와 등 소성재료는 특히 경험의 축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서양인이 쓴 『태서수법』은 2회 밖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물을 저장하는 시설(水庫) 부분 전체를 인용해서 「섬용지」 건축기사 중 가장 길고 자세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2. 인용내용의 선별

실제로 「섬용지」 영조기사의 인용내용은 매우 엄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저서인 『금화경독기』의 내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증보산림경제』에서 인용한 부분 13개를 살펴보면 모두 「복거(卜居)」편에서 발췌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증보산림경제』(1766)는 유중림(柳重臨)이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18세기초)를 증보한 것이다.¹⁶⁾ 『산림경제』 「복거」편은 총 113개의 인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순서는 『거가필용(居家必用)』(원대)이 64회, 『고사촬요(故事撮要)』(조선, 1544)가 15회, 『산거사요(山居四要)』(원대)가 11

16) 『산림경제』는 판본(板本)으로 유포되지 못하고 사본(寫本)으로 세간에 전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이본들이 양산되었다.

표 6. 『증보산림경제』 「복거」 「택재」 기사의 선별

No.	기사내용	인용	No.	기사내용	인용
1	나무를 베기 좋은 날은 기사일 · 경오일 · 신미일 · 임신일 · 갑술일 · 을해일 · 무인일 · 기묘일 · 임오일 · 갑신일 · 을유일 · 무자일 · 갑오일 · 을미일 · 병신일 · 임인일 · 병오일 · 정미일 · 무신일 · 기유일 · 갑인일 · 을묘일 · 기미일 · 경신일 · 신유일 · 천덕일 · 월덕일 · 정일 · 성일 · 개일이다. 또 입동 후부터 입춘 전까지 사이의 오일 · 신일이 좋다.	×	6	집 짓는 재목은 소나무를 최상으로 친다. 그 외의 다른 나무는 비록 좋은 재료가 있어도 초막이나 헛간, 우리, 창고 등을 짓는데 섞어 쓸 뿐이다.	○
			7	벌목은 4월이나 7월에 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단단하고 질기다. 느릅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오디가 떨어지는 것도 좋은 때다. 모든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그 열매가 익으려는 즈음이 다 좋은 때다. 모든 제 때가 아닌 나무는 한 달을 물에 불리고 불에 대고 말리면 벌레는 생기지 않는다.	○
			8	집 짓는 목재는 흰 것, 벌레나 썩이 습 것을 꺼린다. 또 꺼리는 것은 죽은 나무와 말라 죽은 뽕나무이다. 또 지진 끝에 남은 나무나 단풍나무, 대추나무를 꺼린다. 또 사당이나 사찰, 관공서에서 물린 재목과 배의 노로 썩다 나온 나무도 꺼린다. 신수나 사목 및 새나 짐승이 살고 있는 나무도 크게 꺼린다.	○
2	7월 갑진일, 병진일, 임진일에 소나무를 베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			
3	또 황도명성일이 좋다.	×			
4	건일 · 파일 · 평일 · 수일 · 위일 · 천적일 · 화성일 · 적구일 · 산격일 · 사폐일을 꺼린다.	×	9	접붙인 나무를 마룻대나 기둥으로 만드는 것을 꺼린다.	○
5	소나무를 벨 때는 마땅히 맑은 날 꺾질을 벗겨야 한다. 물에 오래 넣어 두면 흰 개미가 생기지 않는다. 또 5경 초에 꺾질을 벗기면 흰 개미가 없다고 한다.	○	10	잡목 가운데 뽕나무만은 초가집 기둥을 만들면 땅에 오래 묻혀있어도 썩지 않고, 문빋장을 만들면 도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백양목은 성질이 단단해 꺾일지 언정 휘지 않으므로 쓰기에 가장 좋다. 오동나무는 판을 만들어 차양을 만들면 비나 이슬에도 견딘다. 그 나머지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가축나무, 울나무 등의 곧게 자라는 나무는 그저 초료나 헛간, 창고, 뒷간, 방앗간이나 만들 수 있다.	○

회로 중국문헌이 전체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⁷⁾ 그러나 약 100여 년 후 편찬된 『임원경제지』 「섬용지」 영조기사에서는 조선문헌이 전체의 약77%를 차지하며 관계를 역전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일차적 원인은 물론 기사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선문헌이 다수 인용된 것에 있다. 그러나 원래 있던 기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산림경제』류의 문헌에서 중국서적을 인용했던 부분은 대체로 건축에서 방위와 시간, 위치관계에 따른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황을 정확히 추출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조선의 지식이 다수 추가되는 경향을 읽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흉을 판단하는 내용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섬용지」에 다시 인용된 부분은 소위 비과학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통적인 복거(卜居)의 내용을 섬용(贍用)의 관점에서 재판단해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인용부분은 구체적인 재료와 제작법이 나타나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목재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보산림경제』 「복거」 「택재(擇材)」 부분에서 인용했는데, 원문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 베기 좋은 날에 관한 내용은 전부 생략했고(1·2·3·4), 단지 재목으로 쓰기에 적절치 못한 물리적 상태를 언급한 부분(5·6·7·8·9·10)만을 취했다. 이러한 선별작업에는 서유구의 관점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그가 「상택지」의 서문에서 주장하였던 바, 술수가(術數家)들의 이론을 배척하고¹⁸⁾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기사만을 선별한 것이다.

3. 주장과 평가

「섬용지」 영조기사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약 60%에 가까운 인용이 자신의 저서인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에서 인용한 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전반적인 유사 편찬의 전통 속에서도 특수한 사례에 속하며, 『임원경제지』의 다른 지들과도 차이를 갖는 특수성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금화경독기』는 서유구가 정계에서 축출당한 후 18년간 향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이용후생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저술된 서적이다. 서유구는 스스로 묘표(墓表)를 지어 자신의 인생을 5단계로 정리한 적이 있다. 이를 근거로 성장기(成長期, 1764-1790), 사환기(仕宦期, 1790-1806), 방폐기(放廢期, 1806-1823), 현달기(顯達期, 1823-1839), 은퇴기(隱退期, 1839-1845)로 구분하면, 『금화경독기』의 저술은 방폐기 동안 이루어졌고, 『임원경제지』는 현달기와 은퇴기에 걸쳐 편찬작업이 진행되었다.¹⁹⁾ 서유구는 방폐기 동안 유양(維楊), 노원(盧原), 금화(金華), 두호(豆湖), 대호(帶湖), 난호(蘭湖) 등을 떠돌았는데, 책제목에 들어간 금화는 그의 고향인 경기도 장단(長湍) 근처로 추정된다. 이 때 서유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임원경제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저술한 책이 『금화경독기』이다.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책이 저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섬용지」 영조기사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인 경험을 위주로 건축기사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대로 「섬용지」 영조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섬용지」 영조기사에는 소위 대목(大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소략하다.

17) 노기춘(2000). 『山林經濟』의 引用文獻 分析考. 書誌學研究, 第19輯, 315-316.

18) 『林園十六志』(오사카본), 卷1, 相宅志引

19) 서유구의 생애에 관해서는 유봉학(1995), 조창록(2002)을 참조.

표 7. 「섬용지」 영조기사에서 안(案)의 용례

	기능	사례
1	단순한 정보의 보충	안. 박(毫)은 벽대(壁帶)로 음(音)이 박(博)이다. 지금 사람들이 중방, 인방으로 부르는 것은 음이 와전되어 그런 것이다.
2	상호참조를 위한 지시	안. 와두(瓦竈)의 제도는 <본리지>에 자세히 나온다.
3	적극적인 평가	안. 돌 덮개는 먼지를 막을 수 있지만 우물 속에 벌레나 뱀이 따리를 틀 우려가 있고 오물을 집어넣어도 다 살필 수 없으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먼지를 막자면 우물 위에 3면에 반 길 담을 둘러쌓고...

기둥과 들보, 도리와 서까래를 짜맞추는 핵심구조의 설명 대신 기와의 사용, 방수·방충·방화 등 방재법, 창·문·마루·온돌·부엌 등의 시설 등에만 집중한 것은 다분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축 요소에만 한정된 저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임원경제지』가 저술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안(案)의 존재이다. 기사는 원칙적으로 인용문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석이 필요한데, 서유구는 안(案)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지시와 평가를 수행했다. 「섬용지」 영조기사에는 총 23회의 안이 등장한다.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유형화시켜보면 단순한 정보의 보충, 상호참조를 위한 지시, 적극적인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석으로 정보를 보충하는 것은 글쓰기의 오랜 관행이며, 상호참조를 위한 지시 기능은 유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서에서 평가를 추가한 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여기서 평가로 구분한 안(案)들은 정보의 비교판단, 개인적 의견의 피력, 실험결과의 기록 등으로 가치평가가 개입된 의견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와와 벽돌(瓦甎)의 가마제도(窯制)에서 『열하일기』의 뒤에 추가한 안에서는, 『천공개물』을 참조해서 수원 화성의 벽돌을 구운 통계를 언급하며 이 책의 설명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은 의견들은 한 번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의 과정 속에서 수십년간 계속되었다고 한다.²¹⁾

4. 대상의 특수성

마지막으로 「섬용지」 영조기사의 특징으로서 「섬용지」가 다루고 있는 대상들의 특수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20) 누군가 말하기를 ‘마른 풀이나 짚대’ 300줄이면 한 가마의 뿔감이 되니 벽돌 8,000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른 풀이나 짚대는 줄기 하나가 엄지손가락만하니 한 줄이라고 해봐야 기껏 4-5 개 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마른 풀이나 짚으로 뿔감을 하면 1,000개 남짓으로 10,000개 가까운 벽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열하일기》 안. 지난해에 화성의 웅성을 쌓을 때 《천공개물》의 벽돌 굽는 법대로 크고 작은 두 개의 가마를 만들고, 큰 가마에서는 큰 벽돌 3,000 장을 구웠고, 작은 가마에서는 1,600 장을 구웠는데, 작은 가마라고 해도 뿔나무 200짐은 쓴 다음에야 비로소 불길이 넉넉해졌으니, 여기에서 마른 풀이나 짚대 300줄 정도면 1가마의 뿔감이 되니 벽돌 8,000 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1) 조창록(2002)를 참조.

표 8. 「섬용지」 영조기사에서 안(案)의 성격

	세목	원전	성격
◎ 營造之制			
1	蓋覆. 華制	熱河日記	평가
2	蓋覆. 東制	金華耕讀記	지시+평가
3	蓋覆. 灰蓋	金華耕讀記	지시+평가
4	房炕. 埃制	金華耕讀記	지시+평가
5	坊墻. 牆壁	金華耕讀記	평가
6	坊墻. 縫中艸不生法	天基雜錄	보충
7	廳牖. 圓廳	金華耕讀記	보충
8	廚竈. 廚屋	金華耕讀記	지시
9	廚竈. 廚屋	金華耕讀記	지시
10	庫廩. 庫制	金華耕讀記	지시
11	溝渠. 灰屋	增補山林經濟	평가
12	井. 鑿深井法	熱河日記	평가
13	井. 鑿井雜法	泰西水法	지시
14	井. 架木引泉法	增補山林經濟	지시
◎ 營造之具			
15	木料. 伐材法	多能集	평가
16	木料. 禁忌	孔氏談苑	지시+평가
17	石料. 治材	古今秘苑	평가
18	土料. 石灰	多能集	보충
19	瓦甎. 燒法	天工開物	보충
20	瓦甎. 窯制	熱河日記	평가
21	瓦甎. 選瓦甎法	古今秘苑	평가
22	塗料. 油書廳法	居家必用	보충
23	塗料. 埃上塗	金華耕讀記	보충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용품의 제작방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던 서적은 그 전까지 그리 많지 않았으며, 또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고찰이 기피되었던 대상들이었다. 더구나 이들 대상은 불변의 제작원칙이 존재하기 보다는 발전하는 기술을 채집해야하는 문제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로서 종합해서 다루기에 어려운 영역이다. 이는 서유구가 자신의 저서를 대거 인용함으로써 「섬용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이 추론은 「섬용지」에서 비단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금화경독기』의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총 14 대목(大目) 중 『금화경독기』가 전체 인용비율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는 곳은 4곳 뿐이며, 『금화경독기』가 가장 높은 인용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대목은 기타공법을 모아 둔 ‘공제총찬(工制總纂)’ 1곳뿐이다. 즉, 「섬용지」 영조기사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사항의 상당부분은 「섬용지」를 구성하는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수성은 이들 대상이 일상적이긴 하지만 그 공법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섬용지」 영조기사에서는 목조건축의 뼈대기술을 다루고 있지 않다. ‘공제총찬(工制總纂)’에서 『영조법식』과 『천공개물』

표 9. 『임원경제지』 「섬용지」 전체 인용서목과 빈도 및 『금화경독기』의 비율

	서명	營造 之制	營造 之具	樵汲 之具	炊爨 之具	服飾 之具	罍櫛 之具	起居 之具	設色 之具	火燭 之具	騎乘 之具	運輸 之具	度量 之具	工制 總纂	계
1	家禮儀節					1								1	2
2	康熙字典													3	3
3	居家必用	4	2					1	2	5				1	15
4	見聞方													1	1
5	京都雜志					4									4
6	古今秘苑		6		2	4	1	1	5		1			16	36
7	古今醫統													1	1
8	孔氏談苑		1												1
9	廣志								1						1
10	仙神隱書									3					3
11	菊史小識											1		5	6
12	金華耕讀記	57	29	12	97	56	27	48	19	28	26	6	8	25	438
13	起居器服箋									1					1
14	老學庵筆記									1					1
15	農桑撮要					1									1
16	農政全書										1				1
17	雷公灸論													1	1
18	多能集	2	5						2						9
19	陶氏本草註								1						1
20	東醫寶鑑					1									1
21	萬家彙要													4	4
22	萬法須知													1	1
23	夢溪筆談						1								1
24	武備志													1	1
25	武藝圖譜通志													2	2
26	武編													1	1
27	物類相感志					2		1						8	11
28	物理小識													1	1
29	磻溪隨錄												1		1
30	本草綱目								10					14	24
31	本草別說													1	1
32	本草拾遺								1					2	3
33	北學議		1							1		3			5
34	山林經濟				1										1
35	山林經濟補	1			2	1			4	1				1	10
36	三山方									1					1
37	三才圖會					1									1
38	西溪叢話													1	1
39	西使記													1	1
40	星湖僿說		1												1
41	小清記									1					1
42	俗方													2	2
43	俗事方		1		1	2	2		3	2				4	15
44	輿地圖書													1	1
45	熱河日記	9	3	2	4	3	1			1	1	2		2	28
46	嶺南雜記													1	1
47	五雜俎													1	1
48	王氏農書	2			8	3		1		3		3	5		25
49	王氏畫苑	1													1
50	類苑叢寶													1	1

표 9. 계속

	서명	營造之制	營造之具	樵汲之具	炊爨之具	服飾之具	罍櫛之具	起居之具	設色之具	火燭之具	騎乘之具	運輸之具	度量之具	工制總纂	계
51	游宦紀聞								1						1
52	律呂精義												1		1
53	耳目口心書													2	2
54	李輔國方													1	1
55	異苑													1	1
56	人事通			1	1	3				2	2				9
57	雜方								1						1
58	傳奇方													1	1
59	傳奇秘訣													1	1
60	正字通													1	1
61	齊民要術	2			3			2							7
62	祭辛雜誌													2	2
63	遵生八									5					5
64	增補山林經濟	9	4		5			2	1	6	7			5	39
65	知世事			1		1	1	1						1	5
66	天工開物		4		4	2	1	1	5	4		2		28	51
67	天基雜錄	1													1
68	泰西水法	2													2
69	漂人所傳方													1	1
70	馮氏日談					1									1
71	避暑錄話							1							1
72	杏蒲志									1					1
73	畫家奇方													1	1
74	和漢三才圖會	1			1		3	1	8	1				16	31
	계	91	57	16	129	86	37	60	64	67	38	17	15	165	842
	금화경독기 비율 (%)	62.6	50.9	75.0	75.2	65.1	73.0	80.0	29.7	41.8	68.4	35.3	53.3	15.2	52.0

등의 서적을 통해 공업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서유구는 고급건축기술을 다루는 서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법식』의 본문을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전각건축을 다루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세기초 그 해석을 위해 중국에서 하나의 학파가 조직되었을만큼²²⁾ 난해한 서적을 혼자 힘으로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당시 참고할 수 있었던 각종 영건의 궤류의 기사도 접근이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이 글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유서인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건축 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지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목차의 구성과 인용서목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때 서지학적 관점이란 글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목차와 문장의 출처를 중심으로 그 구성상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밝힌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양한 기존문헌의 인용으로 구성된 『임원경제지』의 특성에 적절한 연구방식을 제공한다.

『임원경제지』는 현대적 ‘건축’ 개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건축 관련 기사는 여러 지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축물의 재료와 규격, 제작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섬용지」의 내용은 기존 서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서 주목할만하다. 이 글에서는 집짓는 법과 집짓는 재료에 관한 글을 모아 둔 부분을 특히 「섬용지」 영조기사로 명명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섬용지」 영조기사의 특징은 다른 지들에서 중국문헌의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전체의 약75%를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출간된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식은 『열하일기』나 『증보산림경제』 등 일차적으로 한 번 걸러진 형태로 인용되고 있다. 또 인용내용에 있어서도 점복 등 소위 비과학적 판단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재료와 제작법이 나타나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신의 저서인 『금화경독기』를 적극 활용하여 경험적인 지식으로

22) 1929년 주계검(周啓鈺)에 의해 창립된 중국영조학사(中國營造學社)는 처음에 『영조법식』의 해석을 매개로 의기투합한 단체였고, 초기 중국건축사 연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조학사의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林洙(1997). 中國營造學社史略, 中國建築工業出版社를 참조.

주요내용을 채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서의 성격에 비해 저서로서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섬용지」 영조기사가 다루는 대상, 즉 발전하는 기술의 채집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섬용지」를 구성하는 다른 분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들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서술도 다분히 사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임원경제지』 「섬용지」 영조기사는 해당항목에 속하는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험하여 실천가능성이 명백한 것들만 선별한 것으로서 당시 조선의 건축문화와 인식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평가는 건축적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기 보다는 서적의 특징을 이용해 서지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결과 「섬용지」 영조기사가 개인저술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경험적 지식들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임원경제지』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건축기사를 모두 분석한 것이 아니고, 당시 통용되던 다양한 문헌과 충분히 비교고찰을 수행하는데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특수한 대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서지학적 관점을 차용해 건축문화를 고찰하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실상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지길 기대한다. 그간 실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금화경독기』가 최근에 발견되는 등,²³⁾ 앞으로 『임원경제지』가 조선후기 건축문화를 보는 창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용섭 (2009). 조선후기농업사연구(신정증보판). 서울: 지식산업사.
2. 노기춘 (2000). 『山林經濟』의 引用文獻 分析考. 書誌學研究, 19.
3. 노기춘 (2006). 『林園十六志』引用文獻 分析考(1) -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4. 노기춘 (2006). 『林園十六志』引用文獻 分析考(2) -仁濟志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5.
5. 서유구, 林園經濟志 贖用志 교열본. 미출판 원고. 파주: (사) 임원경제지연구소.
6. 서유구·정명현·김정기 (2008). 역주. 임원경제지 본리지 1·2·3. 서울: 소와당.
7. 서지학개론편찬위원회 (2004).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8. 심우준 (1995). 서지학의 제문제. 서울: 혜진서관.
9. 안대회 (2005) 편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돌베개.
10. 유봉학 (1995).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11. 유중림. 농촌진흥청 (2003) 역. 증보산림경제 1·2·3. 서울: 농촌진흥청.
12. 이현창 (2009). 『임원경제지』의 경제학. 제37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서울: 진단학회.
13. 정명현 (2009). 『임원경제지』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규장각, 34.
14. 정 민 (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15. 조창록 (2002). 풍석 서유구에 대한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16. 홍만선, 민족문화추진회 (1982) 역. 국역 산림경제 1·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7. 林 洙(1997). 中國營造學社史略,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접수일(2010. 4. 23)
수정일(1차: 2010. 6. 14)
게재확정일자(2010. 7. 5)

23) 최근 일본 도쿄도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조창록 박사가 확인했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17일자.